패션 및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주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The Effects of Fashion and Beauty Consumption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Hyun-Ju Park · Sook-Hyun Park[†]

Dept. of Fashion Desing &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접수일(2011년 5월 27일), 수정일(2011년 6월 23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1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ashion and beauty consumption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A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for the study metho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emales in their 20s-50s. A total of 580 set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54 se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addition, SPSS 12.0 statistics program was utilized fo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Dunca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the factors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are composed of physical supplementation, social symbolism, appearance styling, sexuality and conformity and those of beauty involvement consisted of hair styling, skin management, make-up and body shaping. Self-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living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Second, (because of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fashion physical supplementation and appearance styling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influenced living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for females in their 20s. However,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did not influence satisfaction for those in their 30s. It was shown that the social conformity factor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influenced appearance satisfaction of self-satisfaction for those in their 40s and the conformity factor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gave a nega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of self-satisfaction for those in their 50s. It was found (for beauty consumption behavior) that the body-shaping factor influenced economic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of self-satisfaction for all age levels.

Key words: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Beauty consumption behavior, Self-satisfaction;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도

I. 서 론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역할, 기능이 다양화 되면서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좋은 신체적 외모가 행복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몸짱’, ‘얼짱’이라는 용어는 외모가꾸기가 열풍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패션과 뷰티소비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행동양식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ark@ks.ac.kr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M. H. Lee(2009)는 의복,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자아존중감, 사회성이나 사회참여도와 관련이 되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만족은 옷차림과 머리모양, 메이크업, 성형, 체중관리 등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과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hin(2005), S. H. Lee(2009), Lee(2008), Kim and Choi(2010), Kim(2010), Kim(1995), M. H. Lee(2009)의 삶의 질 만족도에 관한 연구, Kuh and Lee(1999), Moon and Choo(2008), Park et al.(2005), Cho and Koh(2001)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Jeong(2006), Moon and Yoo(2003), Jeong and Yoo(2008), Kim and Lee(2007), Lee(2004)의 외모 및 화장, 헤어스타일, 피부관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패션과 함께 뷰티영역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동일한 성의 소비집단이지만 연령에 따라서 소비패턴이나 자기만족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 및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여성을 연령별로 구별하여 첫째, 자기만족도, 패션소비행동, 그리고 뷰티소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둘째, 패션소비행동과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타겟소비층의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할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및 뷰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주 소비층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만족도

만족도란 자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일정한 목표나 연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Lee, 2003). Neugarten et al.(1961)에 의하면 자기만족도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자기만족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 정의는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 가능하다. Lee et al.(2009)에 따르면 첫째, 자기만족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만족감)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기만족에 대한 감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와 현실의 합치 정도이다. 따라서 자기만족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기대수준에 의존한다. 셋째, 현실과 기대 외에는 자기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과거의 성취, 개인의 가치관, 의미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등이 있다.

선행연구(Kim, 1995; Kim et al, 1996; Park, 1993)에 따르면 가족응집력이 클수록, 여가활동 빈도 및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감소할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기만족도는 여성들의 패션 및 뷰티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패션소비행동

의복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며 개인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타인이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입고 있는 의복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 내에서 자신을 표현할 이미지를 결정하고 나면 특정한 제품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을 활용한다.

소비자행동이란 소비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탐색·구매·사용 및 평가, 처분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행동이며, 패션소비행동이란 패션제품구매에 관련된 소비행동을 의미한다(Lim et al., 2007). 의복행동과 관련해서 Campbell(1997)은 남성은 도구적 특성을 지니고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에 근거한 쇼핑활동을 하는 데에 반하여 여성은 표현적 특성을 지니고 쇼핑 그 자체를 즐길만한 활동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는 의복쇼핑활동 자체를 여성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im(2005)은 소비자행동은 구매행동과 소비행동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의복구매행동 역시 일반적 소비자행동과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신체적 행동 뿐 아니라 정신적 과정까지 포함되므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소비행동은 의복구매

시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관련되거나 자아와 관련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3. 뷰티소비행동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치관의 변화는 의복뿐만 아니라 뷰티와 관련된 소비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토탈코디네이션의 개념은 패션의 영역을 의복에서부터 뷰티에 이르기까지 확대시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뷰티관련도란 신체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도구, 즉 화장품, 외모 관련 제품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관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일 아침 의복을 선택하고 화장하는 행동을 포함한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외모관리란 자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외모상징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8). 이러한 관리행동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Kaiser(1985)는 사람들의 외모는 개선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여성들은 외모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그리고 피부관리 등의 외모관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 신체와의 괴리감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지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 성형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몸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미적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실현하기위해 뷰티관리행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20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0.1%가 체중조절, 31.6%가 미용성형수술, 47.4%가 피부관리, 44.9%가 전체 화장을, 84.8%가 머리염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령별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라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연령별 패션소비행동과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만족도

개인생활의 포부와 목적달성 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외모, 경제, 대인관계 전반에 관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2) 패션소비행동

패션소비행동이란 자신의 외모, 신분, 가치관 등을 적합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의복 및 패션소품과 관련된 관심의 정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3) 뷰티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은 사회적 이상형과 자신의 실제 외모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연출, 성형수술 그리고 체중관리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관심의 정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기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Jang(2009), Lee(2008), 패션소비행동은 Shin(2006), Chung(2004), 뷰티소비행동은 Park and Park(2009),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자기만족도 16문항, 패션소비행동 23문항, 뷰티소비행동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평가는 5단계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의

인구통계적 변인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수입 등을 질문에 포함시켰다.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5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대는 미혼 96%, 학력은 대학교(전문대) 재학/졸업 94%, 직업은 학생 49%, 직장인 47%,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48%, 가족총수입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0%로 나타났다. 30대는 기혼 66%, 미혼 33%, 학력은 대학교(전문대)재학/졸업이 70%, 직업은 직장인 55%, 전업주부 31%,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8%, 가족총수입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1%로 나타났다. 40대는 기혼 98%, 학력은 대학교(전문대) 재학/졸업이 53%, 직업은 자영업/사업 35%, 전업주부 33%, 직장인 31% 순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로 나타났으며 가족총수입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기혼 98%,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 57%, 직업은 전업주부 46%, 직장인 32%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없다 44%, 가족총수입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2%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연구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t-test, Pearson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기만족도,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의 구성요인

자기만족도,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Table 1. Sample profile

	Range	20' (N=216)		30' (N=113)		40' (N=120)		50' (N=105)	
		Persons	%	Persons	%	Persons	%	Persons	%
Marital status	Single	209	96.8	38	33.6	2	1.9	2	1.9
	Married	7	3.2	75	66.4	118	98.1	103	98.1
Education level	Junior/high school graduation	10	4.6	22	19.5	46	38.3	60	57.1
	College graduation	204	94.4	80	70.8	64	53.3	43	41.0
	Graduate school graduation	2	0.9	11	9.7	10	8.3	2	1.9
Occupation	Student	107	49.5	-	-	-	-	-	-
	Workers	103	47.7	63	55.8	38	31.7	34	32.4
	Business	5	2.3	14	12.4	42	35.0	22	21.0
	Housewife	1	0.5	36	31.9	40	33.3	49	46.7
Monthly income	None	86	39.8	33	29.2	37	30.8	47	44.8
	Less than two million won	104	48.1	43	38.1	40	33.3	33	31.4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26	12.0	32	28.3	29	24.2	16	15.2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	-	3	2.7	9	7.5	8	7.6
	More than six million won	-	-	2	1.8	5	4.2	1	1.0
Gross family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33	15.3	12	10.6	12	10.0	12	11.4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87	40.3	47	41.6	34	28.3	39	37.1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54	25.0	33	29.2	37	30.8	34	32.4
	More than six million and less than eight million won	23	10.6	17	15.0	25	20.8	9	8.6
	More than eight million won	19	8.8	4	3.5	12	10.0	11	10.5

방법은 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1) 자기만족도의 구성요인

자기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은 총 16문항에서 2문항이 제외되고 14문항이 사용되었다. 요인 1은 하는 일에 관한 자부심과 삶을 통한 성취에 관한 문항으로 '생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균형 있는 몸매유지, 외모에 관한 문항으로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한 달 수입에 만족하거나 생활비 지출 정도의 만족에 관한 문항으로 '경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만족에 관한 문항들로 '대인관계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65.81%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2에서 .73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2) 패션소비행동의 구성요인

패션소비행동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은 총 23문항에서 4문항이 제외되고 19문항이 사용되었다. 요인 1은 의복구입 시에 자신을 표현하고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문항들로 '신체보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의복을 구입할 때 그 옷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남들에게 보이는 정도를 고려하는 문항들로 '사회적 상징성'이라고 명명

하였다. 요인 3은 의복연출 시 코디네이션을 고려한 문항들로 '외모연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의복 구입 시에 자신의 외모와 어울리는지,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의복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문항들로 '성적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의복을 구입할 때 그 사회에 유행하는 옷인지 남들과 비슷한 옷인지 고려하는 문항들로 '동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62.02%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0에서 .59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3) 뷰티소비행동의 구성요인

뷰티소비행동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분석은 총 23문항에서 4문항이 제외되고 19문항이 사용되었다. 요인 1은 헤어스타일에 관한 문항들로 '헤어연출'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피부에 관한 문항들로 '피부관리'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얼굴화장에 관한 문항들로 '메이크업연출'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몸매가꾸기에 관한 문항들로 '몸매관리'라고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60.64%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3에서 .72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도의 차이분석

연령에 따라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

Table 2. Self-satisfaction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Living satisfaction	I have achieved the important things I want my life.	.789	4.79	34.22	.82
	I am satisfied that I can try new and various things.	.785			
	I have self-confidence with my present job.	.775			
	I am having an exciting and interesting life.	.679			
Appearance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physical health status.	.810	1.95	48.11	.73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799			
	I maintain a balanced body shape.	.734			
	I have better physical strength than others.	.567			
Economic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daily living expenses.	.819	1.41	58.18	.77
	I am satisfied with my monthly income.	.805			
	I enjoy a better economic condition than the people around me.	.687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my neighbors.	.856	1.07	65.81	.79
	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my family.	.784			
	I have very good life conditions.	.610			

Table 3.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Physical supplementation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whether it can supplement my figure.	.749	5.50	28.95	.77
	I carefully purchase clothes because they show self perception and image.	.680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the whole line and type.	.613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PO (time, place and occasion).	.601			
	I pay my attention to clothes in order to show my ideal figure when wearing clothes.	.557			
Social symbolism	I think that dressing well can raise one's social position.	.794	2.72	43.27	.80
	I want to show my ability by dressing well.	.785			
	I want to wear luxurious clothes because I can be approved by people.	.767			
	Apparel can be an important tool to achieve popularity and obtain employment opportunities.	.590			
Appearance styling	I feel pleasant when I am styling with clothes.	.751	1.39	50.57	.79
	I have products for appearance decoration such as clothes and fashion accessories.	.735			
	I wear a bag, shoes and accessories according to clothes.	.703			
	I purchase clothes that match colors and designs.	.552			
Sexuality	I consciously wear clothes to attract the opposite sex.	.715	1.15	56.62	.59
	I wear clothes that emphasize my femininity.	.666			
	I want to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my favorite celebrity wears.	.541			
Conformity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he level of the clothes my friends or contemporaries wear.	.794	1.04	62.02	.66
	I feel awkward if I look differently in a gathering.	.746			
	I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my close friends have.	.653			

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패션소비행동은 신체보완성,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20대가 패션소비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로 나타났다. 이는 20대는 의복행동을 중요시하고 의복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만족하며 의복에 대한 흥미와 관여가 높은 집단이라고 한(Park et al., 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뷰티소비행동은 헤어연출과 몸매관리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연출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몸매관리는 50대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만족도는 외모만족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로 나타났다. 20대는 사회초년생으로 외적 관리를 통해 자신감과 직장이나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이미

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대 여성들이 외모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생활에 있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여 외적 이미지에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난 Song(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3. 연령별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별 패션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패션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신체보완성요인은 자기만족도의 생활만족요인에, 외모연출성요인은 자기만족도의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을 통해 자신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충분한 자기표현과 자기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는 패션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영향을 미

Table 4. Beauty consumption behavior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Hair styling	Follow the hair styles of celebrities.	.696	6.61	16.37	.77
	Produce my hair style using wax, mousse, and hair gel.	.685			
	Normally I pay special attention to my hair style through hair dying and hair treatments.	.670			
	Usually I style my hair style with a hair dryer or crimper.	.633			
	I consider hair styles trends when I change my hair style.	.623			
Skin management	Often use cosmetics (moisturizer, wrinkle-free, and skin whitening, eye cream) for skin care.	.778	1.94	31.93	.82
	Regularly use a keratin remover or pack products for skin care.	.775			
	Have massages regularly for skin care.	.702			
	Select cosmetics and cleansing products in compliance with my skin type.	.689			
	Visit a dermatologist or a skin care center.	.628			
Make-up	Wear make-up to project a beautiful image.	.732	1.68	46.39	.83
	Always wear skin make-up (make-up base, B.B. and cream, foundation) before going to the office or going out.	.723			
	Often wear various make-up cosmetics such as eye shadow, blusher.	.690			
	Wear make-up with the latest fashion colors and styles.	.629			
	Purchase in fashion make-up cosmetics.	.611			
Body shaping	Carefully choose low calorie foodstuffs to reduce weight.	.828	1.29	60.64	.72
	Do not eat high-calorie foodstuffs, even though I like them very much.	.817			
	Exercise regularly (swimming, fitness, and aerobics) to maintain a slender body shape.	.711			
	Wear supplementary underwear (brassiere and corset) to project a better shape.	.567			

Table 5. Age differences in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beauty consumption and life-satisfaction

	Factor	Age range				F-value
		20'	30'	40'	50'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Physical supplementation	3.78	3.79	3.77	3.61	2.27
	Social symbolism	3.09 A	3.07 A	2.84 B	2.76 B	6.23***
	Appearance styling	3.85 A	3.66 B	3.56 B	3.53 B	7.59***
	Sexuality	2.94 A	2.81 AB	2.66 BC	2.60 C	6.94***
	Conformity	2.71	2.65	2.86	2.76	1.72
Beauty consumption behavior	Hair styling	2.74 A	2.50 B	2.76 A	2.70 A	3.35*
	Skin management	3.20	3.22	3.11	3.00	1.78
	Make-up	3.08	2.92	2.88	2.92	2.00
	Body shaping	2.32 B	2.30 B	2.37 B	2.60 A	3.30*
Self-satisfaction	Living satisfaction	3.42	3.47	3.28	3.32	1.84
	Appearance satisfaction	3.06 A	2.87 B	2.84 B	2.85 B	4.45**
	Economic satisfaction	2.90	2.91	2.90	2.96	0.15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3.45	3.54	3.51	3.37	1.10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Table 6. Effects of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Self-satisfaction	Age range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β)					R^2	F
		Physical supplementation	Social symbolism	Appearance styling	Sexuality	Conformity		
Living satisfaction	20	.181*	-.045	.143	.013	.018	.077	3.507**
	30	.128	-.129	.153	-.038	-.072	0.75	1.731
	40	.044	.090	-.013	.145	.048	.063	1.543
	50	.200	.098	.195	-.089	-.239**	.184	4.465**
Appearance satisfaction	20	.037	.017	-.006	.136	.085	.038	1.638
	30	.082	-.035	.184	-.013	-.011	.054	1.233
	40	-.169	.249*	-.061	.209	-.067	.086	2.139*
	50	-.108	.144	.050	.182	-.145	.066	1.389
Economic satisfaction	20	.030	.099	.094	.021	-.033	.036	1.567
	30	.013	.052	-.014	-.170	-.142	.049	1.101
	40	-.050	.152	-.062	.127	.050	.052	1.258
	50	.084	.061	.157	-.124	-.204*	.091	1.988*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20	-.022	.012	.209*	.095	-.074	.063	2.825*
	30	.054	-.022	.007	.055	-.114	.020	.447
	40	.173	.040	-.134	-.081	.084	.029	.679
	50	.183	.033	.110	-.095	-.056	.060	1.268

* $p < .05$, ** $p < .01$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와 육아 등 가정적으로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자신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사회적상징성요인이 자기만족도의 외모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대인관계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기이므로 패션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면서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동조성요인이 자기만족도의 생활만족요인과 경제만족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중년층들이 늘어나면서 중년여성복의 상징인 요란한 색상과 과제중인 몸매를 감추기 위한 여유 있는 디자인보다는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의 패션으로 개성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 20대의 젊은층들은 체형을 보완해 사회적 이상형에 근접함으로써 일의 성취도와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여성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옷차림을 함으로써 심리적 자기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는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중년여성들인 경우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에서는 패션소비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에 비해 가정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제한되어 있어 자신에게 소홀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 되어진 Hyun(2008)의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2) 연령별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2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요인과 몸매관리요인은 자기만족도의 경제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므로 피부관리와 몸매관리를 통해 좀 더 나은 자신의 외모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부 및 몸매관리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비용이 많이 부과되고 당장에 외적으로 들어나는 요인이 아니므로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요인은 자기만족도

Table 7. Effects of beauty consumption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Self-satisfaction	Age rang	Beauty consumption behavior (β)				R ²	F
		Hair styling	Skin management	Make-up	Body shaping		
Living satisfaction	20	-.054	.114	.080	.081	.037	2.021*
	30	-.004	.059	-.024	.230*	.057	1.627
	40	.197	-.043	-.151	.245*	.086	2.703*
	50	-.013	-.094	.144	.072	.020	.514
Appearance satisfaction	20	.018	.040	.017	.146	.033	1.813
	30	-.161	.035	-.012	.079	.027	.743
	40	-.234	.053	.267*	.040	.086	1.413
	50	-.113	.274*	.001	-.058	.047	1.223
Economic satisfaction	20	-.041	.231**	-.114	.199**	.088	5.103**
	30	-.170	.243*	-.154	.275**	.143	4.503**
	40	-.120	.080	-.148	.280*	.063	1.941
	50	-.175	.136	.206	-.276**	.074	1.999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20	-.035	.187*	-.066	-.030	.025	1.361
	30	-.012	.189	-.081	.206*	.075	2.201*
	40	-.028	-.148	-.138	.380***	.080	2.500*
	50	-.001	.159	.149	-.235*	.066	1.780

* $p < .05$, ** $p < .01$, *** $p < .001$

의 경제만족요인, 몸매관리요인은 자기만족도의 생활만족, 경제만족 그리고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피부노화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피부관리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메이크업연출요인이 자기만족도의 외모만족요인에, 몸매관리요인은 자기만족도의 생활만족요인, 경제만족요인 그리고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사고모임이나 대인관계가 많은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시간적·경제적 투자를 집중하는 시기로 심리적 자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메이크업에 관심이 높고 몸매관리에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요인이 경제만족요인에, 몸매관리요인은 자기만족도의 경제만족요인과 대인관계만족요인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폐경후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노년기의 과도기로서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한 운동으로 몸매관리를 하기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 등으로 건강

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0대의 뷰티소비행동이 낮은 이유는 최근 들어 조기은퇴, 경쟁적인 직무환경 등으로 인한 남성들의 생활위기가 배우자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고기능성 브랜드 제품이나 비싼 가격의 몸매관리를 위한 투자에 대한 제약을 받으므로 뷰티소비행동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년여성의 외모관리제약요인으로 금전적 문제가 39.1%로 가장 많았고, 시간부족 23%, 관심부족 13.8% 순으로 나타난 Kim(2009)의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50대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전업주부이거나 수입이 낮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대상이 전문직, 고소득 부유층이 대부분일 경우 다소 다른 결과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패션과 뷰티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주체인 여성을 연령별로 구별하여 자기만족도, 패션관여도, 뷰티관여도의 구성요인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패션소비행동

및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소비행동의 하위요인은 신체보완성, 사회적상징성, 외모연출성, 성적매력성, 동조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뷰티소비행동의 하위요인은 헤어연출, 피부관리, 메이크업연출, 몸매관리로 구성되었다. 자기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생활만족, 외모만족, 경제만족, 대인관계만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패션소비행동, 뷰티소비행동, 자기만족도의 차이를 연령별로 알아본 결과, 패션소비행동은 신체보완성,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20대가 패션소비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뷰티소비행동은 헤어연출은 40, 20,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몸매관리는 5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알아본 결과, 2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신체보완성, 외모연출성이 생활만족,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패션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사회적상징성요인이 외모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50대는 패션소비행동의 동조성요인이 생활만족, 경제만족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소비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대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가 경제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가 경제만족요인, 몸매관리는 생활만족, 경제만족,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메이크업연출이 외모만족요인, 몸매관리가 생활만족, 경제만족, 대인관계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50대는 뷰티소비행동의 피부관리, 몸매관리가 경제만족, 대인관계만족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20대는 패션소비행동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므로써 자기만족도를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40대는 사회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중년여성들은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가사와 육아,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감으로써 자신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지 못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패션소비행동이 낮

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뷰티소비행동의 결과 20대, 30대, 40대는 자신의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매관리를 하면서 자기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는 뷰티소비행동에서 몸매관리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만족도에서는 경제적, 가정적인 이유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50대는 중년의 절정기로서 사회적 은퇴, 자녀성장에 따른 독립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뷰티소비행동에 따른 자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패션과 뷰티소비행동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거나 체형보완·유지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패션과 뷰티소비행동은 결국에는 자기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패션소비행동과 뷰티소비행동을 구분한 설문내용이 연구마다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연구와의 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패션과 뷰티 관련 변인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광범위한 지역적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는 후속연구들의 필요성을 느낀다. 셋째,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이 남성들에게도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남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ampbell, C. (1997). Shopping, pleasure and the sex war. In P. Falk & C. Campbell (Eds.), *Cognition: The shopping experience* (pp. 166-176). London: Sage.
- Cho, S. M., & Koh, A. R. (200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Chung, K. J. (2004). *Effect of self-disclosur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body exposure in cloth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Hyun, W. J. (2008). *The effect of career women's external image on self-efficacy-Forcus on make-up, hair and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Cheongyang.
- Jang, J. S. (2009). *The effects of pilates participation on the physic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Jeong, K. H. (2006). *The influence of make-up on the image effect-Women in twen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eong, Y. H., & Yoo, T. S. (2008). A study on fashion behavior and make behavior in terms of the lifestyle of post digital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0(4), 526-536.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Kim, A., Lee, S. G., & Koh, A. R. (2006).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reteen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1), 1538-1549.
- Kim, E. J. (2010). Relations among motives of participation, self-man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dance for all.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9(2), 1019-1030.
- Kim, H. J. (2008). *A study on the appearance involvement and clothing consumption value depending on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G., Suh, M. A., Lee, Y. K., & Lee, S. H. (1996). The life satisfactio appearance satisfaction,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women aged 55years and older in Seoul.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4(1), 57-74.
- Kim, J. S., & Choi, S. I. (2010). The effects of lifestyle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97-119.
- Kim, J. W. (2009). *The correlation of body image satisfaction and the appearance caring behavior of mid-aged women regarding the propensity to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
- Kim, S. G. (1995).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clothing behavior-Age and sex in adult and elderly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6, 49-67.
- Kim, S. H. (2003).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Focused on females in their twent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99-108.
- Kim, S. N., & Lee, K. S. (2007). A research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20-40's women according to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Fashion Business*, 11(4), 29-41.
- Kuh, J. M., & Lee, M. H. (1999). A study on consumer values,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3), 459-470.
- Lee, J. (2008). *Achievement of personal goals and life-satisfaction: The role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H., Yoon, J. Y., & Cho, E. A. (2009). Influences of physical self-efficacy by sport leisure activity on gener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for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 379-389.
- Lee, K. S. (2003). *The effects of female seniors participation in the dancing activity to the living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 Lee, M. H. (2004). A study o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perceiver's social value and hair style variat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6), 971-983.
- Lee, M. H.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8), 97-109.
- Lee, S. H. (2009). Potential effects of skin care on client's sense of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10(4), 127-140.
- Lim, K. B. (2005). A study on the women consumers' clothing consumption value and involvement-Comparative analysis of large and small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1), 68-78.
- Lim, S. J., Sin, H. B., Kim, H. J., & Lee, H. M. (2007). *Fashion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Seoul: Kyomunsa.
- Moon, H. K., & Choo, H. J. (2008). The effects of clothing consumption values on ambivalent clothing consum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2), 1-14.
- Moon, H. K., & Yoo, T. S. (2003). A study of th self-esteem,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clothing attitude and make-u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4), 101-112.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ark, H. W., Kim, H., & Lim, S. J. (2005).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based on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1), 103-113.
- Park, K. S. (1993). A study 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 and adaptability they perceiv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1), 121-135.
- Park, O. L., & Park, J. H. (2009). A study on the degree of interest in appearance by women's lifestyle group.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6), 1257-1266.
- Shin, S. A.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emotion of the elderly on the self-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they participate in life-dancing or no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hin, Y. W. (2006). *A study on influencing variables of man'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ong, E. Y. (2005). A study on an influence to recognition and make-up for external image within university's women in Jeju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6(4), 67-85.